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Multifaceted Empathy Test

Seul-Ah Lee¹⁾ Kyoungok Jeon²⁾ Hyun-Ju Cho²⁾ Jung-Hye Kwon^{1),†}

¹⁾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²⁾Department of Psychology, Yo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develop the Korean-Multifaceted Empathy Test (K-MET) for multidimensional measurement of empathy, and to examine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MET consists of 23 sets of photographs, and assesses both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by gauging the mental states of the individuals shown in the photographs and rating emotional reactions in response to the pictures. In the K-MET, photographs and questions were added requiring participants to figure out the situations in the photographs. The final 26 items of cognitive empathy and 20 items of emotional empathy (implicit and explicit way of questions each) were sele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preliminary study.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he K-MET was administered to 33 undergraduates and graduate students. Internal consistency of the K-MET's scales ranged from .72 to .89. In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al analyses, the Cognitive Empath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Faux pas task. The Emotional Empathy Implici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Personal distress subscale of the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and the Questionnaire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The Emotional Empathy Explicit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both the Empathic concern and the Personal distress subscales of the IRI. Results demonstrated good to high reliability of the three subscales. Convergent and divergent validity were also satisfactory.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empathy,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Korean-Multifaceted Emotional Test

† Correspondence concerning this article should be addressed to Jung-Hye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145 Anam-ro, Seongbuk-gu, Seoul, 02841, Korea, Tel: 02-3290-2060, E-mail: junghye@korea.ac.kr

공감(共感)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요소이다. ‘함께 느낀다.’는 말에도 내포되어 있듯 공감은 전통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았다(Hoffman, 2000; Mehrabian & Epstein, 1972). 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느끼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생각, 감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공감의 개념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어 다차원적으로 정의하는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Blair, 2005; Davis, 1983; Feshbach, 1982).

인지적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믿음 등과 같은 정신 상태를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Frith, 1989; Premack & Woodruff, 1978). Feshbach(1982)는 공감을 타인에게서 정서적 단서를 발견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관점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감정을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세 가지로 정의했는데, 그 중에서 인지적 공감은 정서적 단서를 알아채고 이해하며,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한다. 이는 타인의 마음을 자신의 것과 분리해서 표상하고 이해하는 마음 이론(Theory of Mind)과 비슷한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Blair, 2005). 반면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관찰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끼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Eisenberg & Miller, 1987). 최근에는 정서적 공감 안에 운동성 공감을 포함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운동성 공감이란 타인의 얼굴 표정, 목소리, 제스처와 같은 정서적 반응을 자동적으로 모사하는 경향성으로, 공감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Hatfield, Cacioppo, & Rapson, 1994). 이는 정서적 공감이 초기 정서 전염(emotional contagion)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Hoffman, 2000).

최근에는 공감의 생물학적 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운동성 공감과 인지적 공감 두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Zaki & Ochsner, 2012).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을 관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신경 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s)의 발견은 자동적인 정서 전염과 관련된 신경 회로를 밝히는데 기여했다. 거울신경회로에는 아래마루소엽(inferior parietal lobule)와 이마엽 앞운동피질(frontal premotor cortex)등이 포함된다(Carr et al., 2003; Decety & Jackson, 2004). 반면 타인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는 마음이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측두정엽(temporoparietal junction), 측두극(temporal pole), 후측대상피질(posterior cingulate cortex) 등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rith, 2001). Zaki와 Ochsner(2012)는 실험실 연구들에서 두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실제 공감은 여러 인지적, 정서적 과정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제 상황에 보다 가까운 실험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Decety와 Meyer(2008) 또한 운동성 공감을 통한 상향식 정보 수집(bottom-up processing)과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이 관여하는 하향식 정보 처리(top-down processing) 즉, 나와 타인을 구분하여 상황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는 초인지(metacognition)와 자기조절(self-regulation)등이 상호작용하여 실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으며 공감을 보다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공감에 어려움을 보이는 대표적인 임상 집단으로는 자폐성 장애와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들 수 있다. 자폐성 장애와 관련하여서는 마음 이론 즉, 인지적 공감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타인의 내적 상태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생각이나 감정을 추론하는데 명백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aron-Cohen & Jolliffe, 1997; Baron-Cohen, Leslie, & Frith, 1985). 자폐성 장애의 정서적 공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충분하지 않지만(Blair et al., 2005), 거울신경세포(mirror neuron)의 손상과 운동성 공감에서의 어려움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Blair et al., 2005; Decety & Meyer, 2008).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관련하여서는 자폐성 장애와 반대로 정서적 공감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공감은 공격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는 다양한 연령층과 공격성 수준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Miller & Eisenberg, 1988).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한 자동적 반응을 적게 보였다(Blair, 2001; Stevens, Charman, & Blair, 2001).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인지적 공감능력보다는 정서적 공감 능력의 손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Blair et al., 1996; Richell et al., 2003).

최근에는 공감 능력이 장애의 핵심이 되는 자폐성 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뿐만 아니라 조현병이나 분열형 성격장애 등을 대상으로도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능력과 관련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Frith, & Corcoran, 1996; Henry, Bailey, & Rendell, 2008; Pickup & Frith, 2001). 이처럼 공감 능력은 여러 임상 집단의 임상

양상과 사회 적응을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객관적이면서도 실시가 간단한 측정 도구는 부족한 상황이며,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함께 측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방법은 자기보고식 설문지 검사이다. 대표적인 검사로는 Hogan(1969)의 공감척도(Hogan Empathy Scale), Mehrabian과 Epstein(1972)의 정서공감척도(Questionnaire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QMEE), Davis(1983)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Barrett-Lennard(1981)의 관계검사(Relationship Inventory)가 있다. Hogan의 공감척도는 사회적 유능감, 온화함, 민감성, 불순응의 하위 차원을 통해 인지적 공감을 주로 측정하는 반면, 정서공감척도는 정서적 공감을 주로 측정한다. Davis의 대인관계 반응지수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며, 관계 검사는 공감의 의사소통 요소를 주로 측정한다. 하지만 자기보고식 설문지 검사는 생태학적 타당도가 부족하며, 추상적 사고 능력 및 자신에 대한 내성(introspection)을 필요로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공감의 특성 상,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응답하고자 하여 평가 결과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며(Dolan & Fullam, 2007),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공감 능력과 실제 사회적 상황에서의 공감 능력에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Davis & Kraus, 1997).

객관적인 공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적 접근은 인지적 공감 능력 즉, 마음 이론 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마음 이론 과제는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표상화(representation)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사회적 상황과 타인의 마음에 대한 보다 복잡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힌트 과제(Corcoran, Mercer, & Frith, 1995)는 화자의 숨은 의도를 알아차려야 하며, 미묘한 사회적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화자가 말실수를 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파악해야 하는 실언과제(Stone, Baron-Cohen, & Knight, 1998)나, 눈에 나타난 정보만으로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눈빛 과제(Mind in the Eyes Task: Baron-Cohen & Jolliffe, 1997)는 인물의 의도나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정서적 공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피험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안면 모방을 많이 한 사람은 적게 한 사람보다 정서공감척도 점수가 더 높았으며(Sonnby-Borgström, Jónsson, & Svensson, 2003), 정서적 공감에 어려움이 있는 반사회 성격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에 대한 피부 반응을 측정했을 때는 자동적 반응이 감소되어 나타났다(Blair, 2001). 하지만 이러한 생리적 측정은 실시가 번거롭고, 다양한 요인(예: 인지, 주의, 생리적 활동성, 기계 및 실험실 환경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Eisenberg & Fabes, 1990).

다면적 공감 검사(Multifaceted Empathy Test = MET, Dziobek et al., 2008)는 앞서 언급된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실험 과제를 통해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개발되었다. MET는 감정을 경험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물의 얼굴뿐만 아니라 정보가 있는 배경이 함께 주어

지고, 인물의 전체적인 몸짓을 종합하여 유추한다는 점에서 Baron-Cohen과 Jolliffe(1997)의 눈빛 과제보다 실제 상황에 가깝다. MET는 먼저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를 추론하게 하며, 뒤이어 정답을 제시한다. 그런 뒤에는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진에 대한 피험자들의 정서적 반응을 평가하도록 한다. 정서적 공감의 평가는 피험자들의 각성 정도를 묻는 암묵적인 방식의 질문과,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염려가 되거나 흐뭇해지는지 묻는 보다 명백한 질문으로 이뤄진다. 명백한 질문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암묵적인 질문은 각성 수준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덜 명백하고,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적다(Dziobek et al., 2008). 공감을 각성 수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Wundt(1874; Dziobek et al., 2008에서 재인용)의 이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Wundt(1874)는 각성 수준은 타인이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심리적 관여 또는 스트레스 수준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면적 공감 검사의 사진 자극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꾸었다. 아울러 원본 MET의 인지적 공감 과제가 다른 인지적 공감 척도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여(Dziobek et al., 2008), MET 인지적 공감 과제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기존의 마음이론 과제들을 참고하여 원본에 없는 과제를 추가하였다. 마음이론 과제는 이야기나 만화를 통한 생각/의도 파악 과제(Corcoran, Mercer, & Frith, 1995; Langdon & Coltheart, 2004; Stone, Baron-Cohen, & Knight, 1998)와 정서 파악 과제(Baron-Cohen & Jolliffe, 1997)로 나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장의 사진과 인물의 정서 상태를 묻는 질문만 제시되던 원본의 방식에 더해, 4-5 장의 사진 세트로 맥락을 제시하고 인물의 생각과 의도를 추론하도록 하는 질문을 추가하였으며, 예비 연구를 통해 적합한 문항을 추려내고 정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판 다면적 공감 검사의 개발 과정과 실시 및 채점 절차를 밝히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대도시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33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남성 17명, 여성 16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3.52세(±2.60세), 평균 교육 연한은 15.64년(±1.78년)이었다. 교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게시판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였고, 자원한 사람은 실험자에게 연락한 뒤 연구실을 방문하여 실험 과제와 자기보고식 검사를 수행하였다. 시간은 평균 40 ~ 50분 정도 소요되었다. 피험자들은 먼저 연구 참가와 비밀 보장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한 뒤, 한국판 다면적 공감 검사와 실연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런 다음 대인관계 반응지수, 정서적 공감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에 답하였다.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연구도구

한국판 다면적 공감 검사(Korean-Multifaceted Empathy Test = K-MET)

검사 개발 및 검사의 구성. 다면적 공감 검사(Multifaceted Empathy Test = MET)는 Dziobek 등(2008)이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로, 23쌍의 사진 자극들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피험자들은 사진 속 인물들의 정서 상태를 추론하는 질문을 받는다. 네 개의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는 정답이 제시되는데, 이는 이후 수검자들이 동일한 정서 상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다. 답이 주어진 뒤에는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진을 보고 얼마나 각성이 되는지 묻는 암묵적인 방식의 질문이 제시된다(MET의 문항 예: “How calm/aroused does this picture make you feel?”). 그 뒤에는 수검자가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어느 정도로 염려가 되거나 흐뭇해 지는지 묻는 명시적인 질문이 주어진다(MET의 문항 예: “How concerned are you for this man?”).

본 연구의 한국판 다면적 공감 검사(Korean-Multifaceted Empathy Test = K-MET)는 원본 MET와 달리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파트-2’는 원본과 동일한 구성으로, 하나의 사진에 대해 인지적 공감 질문(예: “이 사람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암묵적 정서적 공감 질문(예: “이 사진을 보면 얼마나 차분해지거나 각성이 됩니까?”), 명시적 정서적 공감 질문(예: “이 사람을 보니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집니까?”, “이 사람을 보니 마음이 얼마나 좋게 느껴집니까?”)이 차례로 제시되며, 정서적 공감 척도는 모두 9점 척도로 측정된다. ‘파트-1’은 원본을 보충하고

자 본 연구자들이 추가한 것으로, 이야기가 있는 사진 4 ~ 5장을 세트로 제시한 뒤 사진 속 맥락을 파악하도록 하는 주관식 질문을 포함하였다(예: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이를 통해 인물의 정서 상태만을 추론하는 원본 MET에서 나아가, 보다 복잡한 사회적 맥락과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파트-1’에서는 사진 세트가 제시된 후 맥락 파악 및 정서 상태 추론과 같은 인지적 공감 관련 질문이 제시되고, 정서 상태에 대한 정답을 알려준 뒤 ‘파트-2’와 동일한 암묵적 정서적 공감 질문, 명시적 정서적 공감 질문이 제시된다. 한편 원본 MET는 아스퍼거 성인과 일반인의 공감 능력 차이를 측정하고자 개발되었기 때문에, 비사회적 자극에 대한 각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날 경우를 고려하고자 인물이 포함되지 않은 배경 자극도 포함하여 각성을 측정하였다. 하지만 배경만 제시된 자극은 공감 능력의 측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Lee(2009)의 연구에서는 원본 MET와 동일한 배경 자극을 사용하고 12명의 연극 단원이 MET 등장인물들과 같은 포즈와 표정을 연기하여 합성한 사진을 사용하였지만,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원본 MET와 달리 배우들이 맥락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연기한 모습을 합성한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Diziobek et al., 2008)에서와 같이 인물들의 감정이 보다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진들을 인터넷 상의 사진 스톡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운받거나, 다운받은 사진들을 Adobe Photoshop CS3를 사용해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임상심리전문가 3인이 사진 및 감정 단어 선별에 참여하였다. 인지적 공감의 보기는 Park과 Min(2005)의 연구와 Cho, Park, Song과 Ghim(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감정 단어 목록을 참고하였다.

예비 연구. 인지적 공감 과제의 정답을 선정하기 위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대학생 401명을 대상으로 공감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 설문지인 대인관계 반응지수(IRI)를 실시한 뒤, 총점이 상위 15%, 하위 15%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별하였다. 그 중 실험 참가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개별 연락하여 상위 15% 점수의 학생 중 17명, 하위 15% 점수의 학생 중 16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예비 연구 참가자의 집단 간 성별, 연령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공감 집단의 남:녀 = 8:9, 낮은 공감 집단의 남:녀 = 10:6, $\chi^2 = .37$, *ns*; 높은 공감 집단의 연령 = 20.35 ± 2.06 , 낮은 공감 집단의 연령 = 21.38 ± 2.25 , $t = -1.36$, *ns*). 예비 연구 실험은 Microsoft Powerpoint를 사용해 슬라이드 형식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답안지에 각 질문의 답을 적도록 하였다. 예비 연구에서 지나치게 정답률이 높거나, 반응이 산발적인 자극은 제외하거나 보기를 수정하였으며, 주관식과 객관식 문항 모두 상위 15% 집단을 기준으로 정답률이 65% 이상인 것을 정답으로 선정하였다. 주관식 문항의 경우, 하위 15% 집단에서 자주 나타난 나머지 답들을 오답의 예로 활용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 ‘파트-1’에서 4개의 사진 세트, ‘파트-2’에서 16개의 사진 세트가 선정되었으며(긍정적 감정 사진 8개, 부정적 감정 사진 12개), 인지적 공감 척도는 주관식 6문항, 객관식 20문항, 암묵적 및 명시적

공감 척도는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긍정적 감정에는 흥가분한, 편안한, 사랑스러운, 자신 있는, 평화로운, 감동하는, 열광하는, 부정적 감정에는 억울한, 서운한, 속상한, 간절 한, 화난, 질투하는, 두려운, 불안한, 슬픈, 우울한, 주눅든을 포함하였다.

검사의 실시 및 채점. K-MET의 자극은 E-Prime을 사용해 컴퓨터로 제시되었고, 피험자들의 응답과 반응 시간은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주관식 문항은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응답이 모두 끝난 뒤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도록 하였다. 이미 본 슬라이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안내하였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 검사 형식과 질문 유형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고, 검사는 피험자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시간은 개인당 20 ~ 25분 가량 소요되었다. 인지적 공감 척도의 정답은 각 1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총 26점이다. 암묵적 정서적 공감 척도, 명시적 정서적 공감 척도는 각각 20문항의 평균으로 계산하였다.

실언과제(Faux Pas Task)

피험자들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실언과제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버전은 Stone이 고안하고 Shin(2004)이 번안한 것이다. 실언과제는 두 사람의 대화 중에 한 사람이 실수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이야기를 제시한다. 각 이야기마다 네 개의 질문이 제시되는데, 첫 번째는 화자가 왜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었는지(청자의 마음 상태에 대한 추론), 두 번째는 실언을 한 화자의 말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화자의 마음

상태에 대한 추론), 세 번째는 실언을 한 화자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화자의 정서 상태 추론)를 묻는 것이며, 마지막은 통제 질문으로 이야기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따라서 피험자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말한 사람의 의도, 기분까지 세 가지에 대한 추론이 필요하다. 질문을 제시할 때에는 “왜 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었나요?”와 같이 주인공의 이름을 적는 공간을 비워두고, 실언을 한 화자의 이름을 적은 후 답을 적도록 하였다. 총 4개의 이야기가 제시되었으며, 질문에 대해 알맞은 답을 하였을 때에는 1점, 부적절한 답을 하였을 때에는 0점이 주어지며, 각 질문의 총점은 4점이다. 총점은 통제 질문을 제외한 질문의 합으로 12점이다.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spersal Reactivity Index = IRI)

피험자가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자신의 공감 수준을 측정하고자 대인관계 반응지수(IRI)를 실시하였다. IRI는 Davis(1983)이 개발하였으며,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한다. 5점 리커트형 척도이며, 4개의 하위 차원에 각각 7개 문항이 포함되어 전체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차원은 인지적 공감과 관련된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와 상상하기(fantasy), 정서적 공감과 관련된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과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점 취하기는 타인의 입장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경향, 상상하기는 책이나 영화를 보고 등장인물에 몰입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공감적 관심은 타인에 대해 염려하고 동정심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며, 개인적 고통은 타인의 고통을 보았을 때 정서적으로 관여되고 고통

을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Park(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54를 나타낸 관점 취하기를 제외하고는 .68 ~ .76으로 안정적이었다.

정서적 공감척도(Questionnaire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 QMEE)

피험자들의 정서적 공감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Mehrabian과 Epstein(1972)이 개발하였다. 9점 리커트형 척도(4 = 매우 강하게 반대함, 4 = 매우 강하게 동의함)이며, 총 33문항으로 이뤄져있다. 이 척도는 정서감염에 대한 민감성, 낮은 타인에 대한 느낌의 인식, 극단적인 정서적 반응성, 타인의 긍정적 정서경험에 감동하는 경향성,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에 감동하는 경향성, 동정적인 경향성, 곤경에 처한 타인과 접촉하려는 의지의 7개 하위척도로 정서적 측면에서의 공감을 측정한다. Crowne과 Marlowe(1960)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와의 상관이 낮은 문항들 가운데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ark(1994)이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76이었다.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ocial Desirability Scale-17 = SDS-17)

사회적 바람직성은 피험자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답하는 대신 사회적 승인을 높이는 방식으로 응답하려는 성향을 말한다(Rubin & Babbie, 2008). 이는 측정 오류를 발생시켜 본래 측정하려고 했던 정보와 다른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공감은 특히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

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SDS-17)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Stober(2001)가 개발한 것으로, 한국어로 번안된 뒤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Kim, Jun, & Yi, 2008), 예/아니오로 답하는 16개 문항으로 이뤄져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분석 방법

K-MET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검증하고자, 각 하위 척도 별로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하위 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공감 척도와의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의 교정 점수 계산에 필요한 회귀계수를 구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PASW 18.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결 과

신뢰도

K-MET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각 하위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구하였다. 먼저 인지적 공감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2, 암묵적 정서적 공감 척도는 .83, 명시적 정서적 공감 척도는 .89로 좋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나타냈다.

Table 1
Mean,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and Correlations among the K-MET's Cognitive Empathy Scale (CE), Emotional Empathy Scales (implicit = EEI, explicit = EEE), the Faux Pas Task Subscales, IRI Subscales and QMEE (N=33)

	M	SD	1	2	3	4	5	6	7	8	9	10	11
1. K-MET CE	21.73	3.24	-										
2. K-MET EEI	4.55	.84	.20	-									
3. K-MET EEE	6.32	1.08	.19	.69**	-								
4. FP Total score	9.18	1.93	.46**	-.03	-.06	-							
5. FP Mental state of listener	3.48	.76	.27	.11	.09	.56**	-						
6. FP Mental state of speaker	3.15	1.06	.33	.00	-.04	.83**	.22	-					
7. FP Emotion of speaker	2.55	.87	.39*	-.16	-.17	.72**	.19	.42*	-				
8. IRI PT corrected score	21.09	3.14	-.13	-.09	-.09	-.05	.04	-.10	-.02	-			
9. IRI Fantasy	25.67	3.74	-.02	.33	.29	.15	-.02	.28	.00	.03	-		
10. IRI Emotional Concern	24.94	4.20	.21	.33	.40*	.21	.56**	.04	-.07	.17	.29	-	
11. IRI Personal Distress	21.85	3.72	.43*	.38*	.43*	-.08	-.01	.01	-.18	-.25	.15	.41*	-
12. QMEE	41.97	22.16	.54**	.44*	.27	.46**	.34	.45**	.17	-.01	.37*	.61**	.43*

Note. K-MET = Korean-Multifaceted Empathy Test CE = Cognitive Empathy; EEI = Emotional Empathy Implicit; EEE = Emotional Empathy Explicit; FP = Faux Pas Task; IRI =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PT = Perspective Taking; QMEE = Questionnaire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 $p < .05$. ** $p < .01$. *** $p < .001$.

타당도

K-MET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고자 다른 공감 검사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전에 K-MET를 비롯한 공감 검사들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반응지수의 소척도인 관점 취하기에서만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r = .48, p < .01$). 사회적 바람직성의 설명량

은 23%로 나타났으며($R^2 = .23, F = 9.03, p < .01$), 관점 취하기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44, p < .01$). 관점 취하기는 Saunders(1991)의 공식¹⁾으로 교정점수를 구한 뒤 다른 척도와 상관분석 하였다.

인지적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실언과제 총

- 1) $Y' = Y - (기울기 \times \text{사회적 바람직성})$
 Y' =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제거한 후 점수
 Y =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제거하기 전 점수
 기울기 = 단순회귀방정식에서의 기울기

점과 K-MET의 인지적 공감 과제(Cognitive Empathy = CE)의 상관을 비교한 결과 .46의 상관을 보였다. 특히 실언과제의 하위 질문들 중에서는 화자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질문과의 상관이 유의하였다($r = .39, p < .05$). 자기보고식 검사인 IRI의 인지적 공감 관련 소척도 즉, 관점 취하기 및 상상하기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IRI의 정서적 공감 관련 소척도인 개인적 고통 척도 및 정서적 공감 척도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r = .43, p < .05, r = .54, p < .01$).

K-MET의 암묵적 정서적 공감 과제(Emotional Empathy Implicit = EEI)와 다른 공감 검사와의 상관을 비교한 결과 IRI의 개인적 고통 척도와 .38의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적 공감 척도와는 .44의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K-MET의 명시적 정서적 공감 과제(Emotional Empathy Explicit = EEE)와 다른 공감 검사와의 상관을 비교한 결과 IRI의 공감적 관심 척도와 .40, 개인적 고통 척도와 .43의 상관을 나타냈다. EEI와 EEE 모두 다른 인지적 공감 검사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K-MET 하위 과제들은 대체로 적절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며, 각 하위 과제들 간에는 EEI와 EEE만이 .69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K-MET의 반응 시간은 K-MET 점수나 다른 공감 검사 결과와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K-MET 하위척도와 공감 검사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각 검사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다면적 공감 검사(K-MET)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K-MET는 한국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도록 사진 자극을 교체했고, 예비 연구를 통해 적절한 보기와 정답을 선정하였다. 또한 원본 MET와 같이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지만, 사진 속 인물의 감정 파악만으로 인지적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물이 처한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도록 하는 질문을 추가하여 보다 풍부하게 인지적 공감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K-MET의 하위 과제들은 좋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였으며, 다른 공감 검사들과의 상관을 통해 살펴본 타당도 결과는 아래에 제시하였다.

먼저 인지적 공감 과제(Cognitive Empathy = CE)는 인물이 처한 상황과 인물의 의도, 감정을 파악해야 하는 실언과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CE는 사회적 맥락과 타인의 감정 파악 능력을 측정하며, 적절한 수렴 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자기보고식 검사인 IRI 인지적 공감 관련 소척도 즉, 관점 취하기 및 상상하기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먼저 관점 취하기 하위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문제이다. IRI는 각 소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이지만(Davis, 1983), 본 연구에서는 관점 취하기의 신뢰도가 불안정하였고, 다른 공감 검사와 달리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자기보고식 검사와 실험 과제 결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이다. 실제로 자기보고 측정치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응하는 공감 정확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Davis & Kraus, 1997).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인지적 공감 능력의 측정은 자기보고식 검사보다 실험 과제로 이뤄지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CE는 IRI의 정서적 공감 관련 소척도인 개인적 고통 척도 및 정서적 공감 척도(QMEE)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CE의 변별 타당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자체의 관련성 때문일 수 있겠다. 이는 다른 인지적 공감 능력 과제인 실언과제와 정서적 공감 척도 또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더욱 지지된다. 경험적 연구들은 두 영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지지하거나, 분리된 각 영역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다(Zaki & Ochsner, 2012). 하지만 분리된 두 영역이 서로 관련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며(Smith, 2006), 앞으로는 그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겠단다.

K-MET의 암묵적 정서적 공감 과제(Emotional Empathy Implicit = EEI)는 IRI의 개인적 고통 및 정서적 공감 척도(QMEE)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반면, IRI의 공감적 관심과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EEI는 공감과 관련된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보다 정서적 상황에 대한 각성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초기 정서 전염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Eisenberg & Eggum, 2011). 정서 전염은 공감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지만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하향식 정보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공감적 관심이나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Decety & Meyer, 2008). 연구들은 개인적 고통과 공감적 관심의 구분을 지지하고 있는데, 행동 측정치에서 피험자들이 개인적 고통에 집중할 때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tson et al., 2003), fMRI 자료에서도 자기 관점에 집중할 때에는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에 비해 편도체와 같이 고통 및 공포와 관련된 뇌 영역이 더 많이 활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amm, Baston, & Decety, 2007). 반면 공감적 관심은 개인적 고통과 달리, 정서조절 능력과 같은 전두엽 기능이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Cheng et al., 2007).

Eisenberg와 Fabes(1990)는 생리적 각성이 타인에 대한 동정적인 반응보다는 개인적 고통과 더 큰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EEI는 공감적 관심보다는 개인적 고통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즉 원본 MET의 암묵적 공감 척도는 개발 당시에는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덜 받는 정서적 공감을 측정하고자 포함되었으나, 덜 성숙한 유형의 정서적 공감에 해당되는 개인적 고통 또는 초기 정서 전염을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강한 정서 반응성(emotionality)에 더해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을 때 개인적 고통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Eisenberger et al., 1994), 추후 연구에서는 생리적 각성과 정서적 공감 사이에 정서 조절 능력의 매개 효과를 함께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아울러 원본 MET와 본 연구에서는 사진과 정서 단어의 각성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높은 정서적 각성을 강한 공감 반응으로 채점하였으나, 정서 전염이 모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각성 수준이 낮은 몇몇 사진들(예: 편안함,

평화로운)은 낮은 수준의 각성을 강한 공감 반응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기존의 분석 방법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K-MET의 명시적 정서적 공감 과제(Emotional Empathy Explicit = EEE)는 IRI의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모두와 상관을 나타냈다. EEE는 사진 속 인물이 어느 정도로 염려되는지 직접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고통뿐만 아니라 공감적 관심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EEI와 달리 보다 성숙한 유형의 정서적 공감인 공감적 관심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EEI는 정서적 공감 척도(QMEE)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반면, EEE는 QMEE와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QMEE는 정서적 공감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측면을 포괄하고 있지만, 각 하위척도가 개별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서적 공감의 어떠한 측면이 EEI 및 EEE와 관련이 되고, 그렇지 않은지 밝혀내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 EEI와 EEE가 정서적 공감의 어떠한 측면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의 반복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E가 다른 정서 공감 척도와 상관을 보인 것과 달리 EEI와 EEE는 다른 인지적 공감 척도들과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개발자인 Dziobek(2008)이 지적하듯 MET는 인지적 공감 과제의 정답을 알려준 뒤 정서적 공감과 관련된 질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인지적 공감의 정확도가 정서적 공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지적 공감 과제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인지적 공감의 정확도와 정서적 공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일본 MET는 인

지적 공감의 정확도 여부가 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인지적 공감의 정답을 제시한 뒤 암묵적 공감 반응과 명시적 공감 반응을 측정하였으나, 생리적 각성 정도를 묻는 암묵적 공감 반응은 명시적 공감보다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정서 전염에 가깝다. 따라서 자극이 제시된 이후 바로 측정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으므로, 질문의 제시 순서를 다르게 하여 순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참여한 피험자의 수가 적어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대한 분석도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반사회 성격장애와 같이 공감 능력의 어려움을 보이는 임상군에 대한 연구나 생리적 측정치, 정서 조절 능력, 친사회적 행동 등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타당도를 반복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능력을 동시에 측정하는 과제가 전무한 상태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실험 과제를 개발했다는 의의가 크다. 특히 일상생활에 가까운 맥락 자극과 몸짓, 표정 등의 다양한 정서적 단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자기보고식 설문 검사뿐만 아니라, 스크립트나 눈의 표정만을 제시했던 여타의 마음이론 과제보다 더 나은 생태학적 타당도를 가진다. K-MET는 공감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장애군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공감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Baron-Cohen, S., & Jolliffe, T. (1997). Another advanced test of theory of mind: Evidence from very high functioning adults with autism or asperger syndr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8*, 813-822.
- Baron-Cohen, S., Leslie, A. M., & Frith, U. (1985). Does the autistic child have a "theory of mind"? *Cognition, 21*, 37-46.
- Barrett-Lennard, G. F. (1981). The empathy scale: Refine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Batson, C. D., Lishner, D. A., Carpenter, A., Dulin, L., Harjusola-Webb, S., Stocks, E. L., Gale, S., Hassan, O., Sampat, B. (2003). As you would have them do unto you: Does imagining yourself in the other's place stimulate moral action?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1190-1201
- Blair, R. J. R. (2001). Neuro-cognitive models of aggression, th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s and psychopathy. *Journal of Neurology, Neurosurgery & Psychiatry, 71*, 727-731.
- Blair, R. J. R. (2005). Responding to the emotions of others: Dissociating forms of empathy through the study of typical and psychiatric populations.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4*, 698-718.
- Blair, R. J. R., Sellars, C., Strickland, I., Clark, F., Williams, A., Smith, M., Jones, L. (1996). Theory of mind in the psychopath. *Journal of Forensic Psychiatry, 7*, 15-25.
- Carr, L., Iacoboni, M., Dubeau, M. C., Mazziotta, J. C., & Lenzi, G. L. (2003). Neural mechanisms of empathy in humans: A relay from neural systems for imitation to limbic are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9*, 5497-5502.
- Cheng, Y., Lin, C., Liu, H. L., Hsu, Y., Lim, K., Hung, D., Decety, J. (2007). Expertise modulates the perception of pain in others. *Current Biology, 17*, 1708-1713.
- Cho, K., Park, S., Song, I., & Ghim, H. (2007). Development changes in emotional states and facial expression. *Korean Journal of the Science of Emotion & Sensibility, 10*, 127-138.
- Corcoran, R., Mercer, G. & Frith, C. D. (1995). Schizophrenia, symptomatology and social inference: Investigating 'theory of mind' in people with schizophrenia. *Schizophrenia Research, 17*, 5-3.
- Crowne,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ant Psychology, 24*, 349-354.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13-126.
- Davis, M. H., & Kraus, L. (1997). Personality and empathic accuracy. In W. Ickes (Ed.), *Empathic accuracy* (pp. 144-168). New York: Guilford Press.
- Decety, J., & Jackson, P. L. (2004). The functional architecture of human empathy. *Behavioral and Cognitive Neuroscience Reviews, 3*, 71-100.
- Decety, J., & Meyer, M. (2008). From emotion resonance to empathic understanding: A social developmental neuroscience account, *Development*

- and Psychopathology*, 20, 1053-1080.
- Dolan, M., & Fullman, R. (2007). Empathy, anti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pathology. In T. Farrow & P Woodruff (Eds.), *Empathy in mental illness* (pp. 33-4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ziobek, I., Rogers, K., Fleck, S., Bahnemann, M., Heekeren, R. H., Wolf, T. O., & Convit, A. (2008). Dissociation of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in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using the Multifaceted Empathy Test (MET). *Journal of Autism Developmental Disorder*, 38, 464-473.
- Eisenberg, N., & Eggum, N. D. (2011). Empathic responding: Sympathy and personal distress. In J. Decety & W. Ickes (Eds.),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pp. 71-84). Cambridge, MA: MIT Press.
- Eisenberg, N., & Fabes, R. A.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14, 131-149.
-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Karbon, M., Maszk, P., Smith, M., O'Boyle, C., Suh, K. (1994).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empathy-related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776-797.
-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1, 91-119.
- Feshbach, H. D. (1982). Sex differences in empathy and social behavior in children. In N. Eisenberg (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 315-338).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th, C. D., & Corcoran, R. (1996). Exploring 'theory of mind' in people with schizophrenia. *Psychological Medicine*, 26, 521-530.
- Frith, U. (1989). *Autism: Explaining the enigma*. Oxford: Blackwell.
- Frith, U. (2001). Mind blindness and the brain in autism. *Neuron*, 32, 969-979.
- Hatfield, E., Cacioppo, J. T., & Rapson, R. (1994). *Emotional contag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nry, J. D., Bailey, P. E., & Rendell, P. G. (2008). Empathy, social functioning and schizotypy. *Psychiatry Research*, 160, 15-22.
- Hoffman, M.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caring and justi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gan, R. (1969). Development of an empathy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307-316.
- Kim, Y., Jun, S., & Yi, P. (200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8, 5-32.
- Lamm, C., Batson, C. D., & Decety, J. (2007). The neural basis of human empathy -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and cognitive appraisal: An event-related fMRI stud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9, 42-58.
- Langdon, R., & Coltheart, M. (2004). Recognition of metaphor and irony in young adults: The impact of schizotypal personality traits. *Psychiatry Research*, 125, 9-20.
- Lee, S. (2009). *Empathy and social adjustment in individuals with schizotypy*. (Unpublished

-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Mehrabian, A., & Epstein, N. (1972).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 Miller, P. A., & Eisenberg, N. (1988). The relation of empathy to aggressive and externalizing/antisocial behaviour. *Psychological Bulletin*, 103, 324-344.
- Park, I., & Min, K. (2005). Making a list of Korean emotion terms and exploring dimensions underlying them.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 109-129.
- Park, S. (1994). *Empathy, Empathic Understanding*. Seoul: Wonmisa.
- Pickup, G., & Frith, C. D. (2001). Theory of mind impairments in schizophrenia: Symptomatology, severity and specificity. *Psychological Medicine*, 31, 207-220.
- Premack, D., & Woodruff, F. (1978). Does the chimpanzee have a theory of mind?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4, 515-526.
- Richell, R. A., Mitchell, D. G., Newman, C., Leonard, A., Baron-Cohen, S., & Blair, R. J. (2003). Theory of mind and psychopathy: Can psychopathic individuals read the 'language of the eyes'? *Neuropsychologia*, 41, 523-526.
- Rubin, A., & Babbie, E. R. (2008).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 (6th ed). Belmont, CA: Thompson Brooks/Cole.
- Saunders, D. G. (1991). Procedures for adjusting self-reports of violence for social desirability bia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6, 336-344.
- Shin, Y. (2004). *Theory of Mind in schizophren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Smith, A. (2006). Cognitive empathy and emotional empathy in human behavior and evolution. *The Psychological Record*, 56, 3-21.
- Sonnby-Borgström, M., Jönsson, P., & Svensson, O. (2003). Emotional empathy as related to mimicry reactions at different levels of information processing.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7, 3-23.
- Stevens, D., Charman, T., & Blair, R. J. R. (2001). Recognition of emotion in facial expressions and vocal tones in children with psychopathic tendenc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2, 201-211.
- Stober, J. (2001). The Social Desirability Scale-17 (SDS-17): Converg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and relationship with ag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17, 222-232.
- Stone, V. E., Baron-Cohen, S., & Knight, T. R. (1998). Frontal lobe contributions to theory of mind.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0, 640-656.
- Wundt, W. (1874). *Grundriss der Psychologie*. Leipzig: Engelmann.
- Zaki J., & Ochsner K. (2012). The neuroscience of empathy: Progress, pitfalls, and promise. *Nature Neuroscience*, 15, 675-680.

Received August 28, 2015

Revised March 3, 2016

Accepted March 20, 2016

한국판 다면적 공감 검사(K-MET)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 슬 아	전 경 옥	조 현 주	권 정 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동시에 측정하는 다면적 공감 검사(Multifaceted Empathy Test: MET)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K-MET는 인물의 감정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서 반응을 측정하는 기존의 형식에 더해, 맥락과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사진 자극과 질문을 추가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주관식 문항이 포함된 인지적 공감 과제 26문항과 암묵적 및 명시적 정서 공감과제 각 20문항을 선정하였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33명에게 K-MET와 실언과제, 대인관계 반응지수, 정서적 공감척도,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실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세 하위 척도 모두 좋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보였다. 인지적 공감 과제는 사회적 상황과 타인의 감정 파악 능력을 측정하는 실언과제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고, 암묵적 정서적 공감 과제는 대인관계 반응지수의 하위척도인 개인적 고통 및 정서적 공감척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명시적 공감 과제는 대인관계 반응지수의 하위척도 중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모두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본 검사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고 있음이 시사되었다.

주요어: 공감능력,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공감검사, 한국판 다면적 공감검사, K-MET